

지방사찰 문화예술 '열린공간'

다채로운 행사 기획... 포교 다양화 추구

KTS 열린음악회가 오는 5월 전년 역사와 고찰 '불국사'에서 열린다는 소식은 싱그럽고 반갑다. '열린음악회'처럼 폭넓은 인기를 얻고 있고 시청률이 높고 프로그램의 유치가 반갑기도 하지만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여 열린 이 음악회는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사찰이 보고만 가는 단순한 문화유적이 아니라 대중들이 한자리에서 문화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불국사 봉축기념 '열린음악회' 유치
분황사 음력 5월 16일 원효문예대전
철보사 노인전통혼례·백일장등 마련

81%가 대도시를 집중해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에서의 문화 활동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불교계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빈약한 문화 활동이 대부분 서울에 편중되어 있어 지방의 불자들은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 형편이다.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불자뿐 아니라 시·군민이 동참할 수 있는, 지방의 사찰이 중심이 돼 펼쳐질 문화 행사를 알아본다.

경주 부처님마을(주지 도문)·정토법당(주지 경수)=매년 '열린음악회'(음력 10월 보름 저녁)와 '충담제'(음력 3월 삼짇날 오전)를 연다. 월명재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월명사의 발자취를 따라 보물알 아래 월명사에서 피리를 불며 향가를 읊는 행사이며, 충담제는 삼화령 비루부처님께 차를 올리고

반아상으로 내려와 차를 나누어 마시는 그윽한 행사.

부산 삼광사(주지 훈광)=차문화연구보존회 주관으로 매년 10월 다례 시연과 차 겨루기, 문화공연을 갖는다.

양산 통도사(주지 지은)=개창주인 자장유사를 기리는 개산대제를 매년 10월 갖는다. 사생대회 한불가경연대회 등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해남 대둔사(주지 천운)·일지암(주지 여연)=구민의 날인 10월25일을 전후해 다성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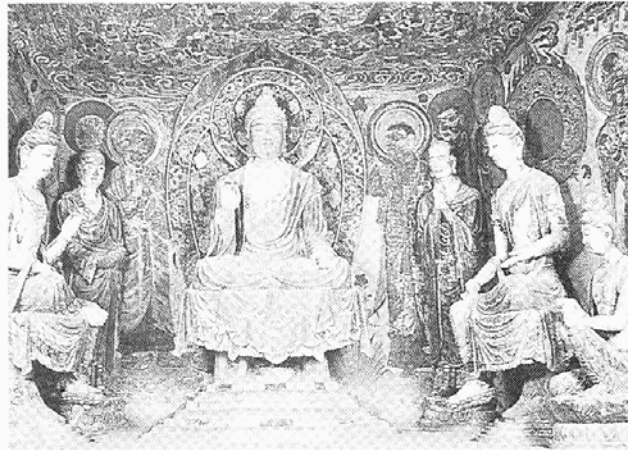
의스님을 기리는 초의문화제가 열린다. 전국 각처의 불자들이 초의스님을 기려 일지암을 순례하며 차회도 갖는다.

동두천 자재암(주지 선광)=소요산 단풍이 만발한 10월 중순경 동두천시와 연계해 산재를 지내며 시민 노래자랑, 단풍아가씨 선출, 산행대회를 개최한다.

부천 석왕사(주지 영담)=음력 7월15일 백중을 맞아 노동자·청년들을 초청해 문화행사를 갖는다. 동지에는 관공을 사시하고 마당극도 공연한다.

대구 칠보사(주지 무상)=5월 8~11일 노인전통혼례식, 사물놀이, 관현악단 공연, 합창대회, 백일장 등 칠보문화축제를 갖는다.

이경숙 기자



동서문화교류의 교류보였으며, 특히 불교회화와 조각들로 가득차 있어 이 동굴사원들은 세계적으로 가장 광대하고 뛰어난 불교 미술관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 책에 실린 40개의 석굴은 연구결과 5세기초에서 11세기까지 축조된 것으로 제1권은 연대별로 석굴벽화들의 부본도를 주제별·문양별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제2권은 위트필드가 글을 쓰고 일본 사진작가 오츠카 세이코가 사진을 맡아 고려대 권영필교수가 번역한 <동굴> (全 2권)을 펴냈다. 366년 '낙준'이란 스님이 단독 좌선할 목적으로 동화막고굴에 석굴하나를 파기 시작해 그후 1천여년동안 수백개의 석굴들이 만들어져 이곳은 불교순례의 중요한 거점이 됐다.

최근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펴낸 <문화예술 3월호>는 지역 2백호를 맞아 국내 문화예술활동 동향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94년 벌어진 1만여건의 주요문화예술활동 중 절반 이상인 55%가 서울에서,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에서가 26% 등 총

지역 문화·예술을 꽃피우는데 지역사찰이 더욱 적극적으로 뛰어들이야 한다. 철쭉제, 낙엽제 등 산행행사나 군민의 날 등 지역 연례행사와 연계해 사찰에서도 문화행사를 기획해 사찰을 열린 공간으로 대중에게 적극 개방해 포교에 다양화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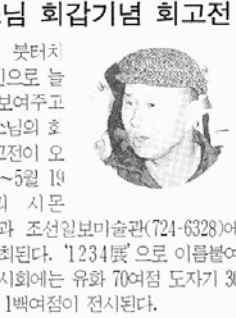
서는 안정현씨가 찍은 석굴암등 경주문화재 사진전이 열린다. 경주 분황사(주지 종수)=음력 5월16일 원효스님 기일에 맞춰 원효문예대전 개최. 관상사·마당극·춤 등 공연. 원효스님 지서, 자료, 분황사 유물 전시도 있을 예정.

지형스님 대길상도 첫 작품전
21~23일 부산일보전시관... 문화강좌도

포교·복지·장학발사 후원을 위한 지형스님(소림) 불교아카데미 원장의 대길상도 작품전과 불교문화대강좌가 오는 21일~23일 부산일보사 2층 전시관에서 열린다. 전시기간중 매일 오전 불교문화대강좌(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는 무진장

스님, 암도스님, 서운길교수(동국대) 류시화씨(시인)가 강연을 하며 김병조, 김흥국, 두레매 등의 공연도 마련된다. 20여년간 불들이 다진 필력을 바탕으로 물고기, 석불, 용 등 단박하고 소탈하게 선기를 표현한 길상도들이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서 지형스님은 '불멸의 영혼' '성불의 세계' 등 2백여점의 작품을 내놓는다.

종광스님 회갑기념 회고전
파격적인 붓 터치와 실험정신으로 늘 새로운을 보여주고 있는 종광스님의 회갑기념 회고전이 오는 4월25일~5월 19일 갤러리 시몬(549-3031)과 조선일보미술관(724-6328)에서 각각 개최된다. 1234평으로 이름붙여진 이번 전시회에는 유화 70여점 도자기 30여점 등 총 1백여점이 전시된다.



"돈황석굴 미술품 사진으로 본다"

동서문화교류의 교류보였으며, 특히 불교회화와 조각들로 가득차 있어 이 동굴사원들은 세계적으로 가장 광대하고 뛰어난 불교 미술관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 책에 실린 40개의 석굴은 연구결과 5세기초에서 11세기까지 축조된 것으로 제1권은 연대별로 석굴벽화들의 부본도를 주제별·문양별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제2권은 위트필드가 글을 쓰고 일본 사진작가 오츠카 세이코가 사진을 맡아 고려대 권영필교수가 번역한 <동굴> (全 2권)을 펴냈다. 366년 '낙준'이란 스님이 단독 좌선할 목적으로 동화막고굴에 석굴하나를 파기 시작해 그후 1천여년동안 수백개의 석굴들이 만들어져 이곳은 불교순례의 중요한 거점이 됐다.

사진집·석굴분석서 본격 소개 처음
저자 위트필드교수 4월20일 한국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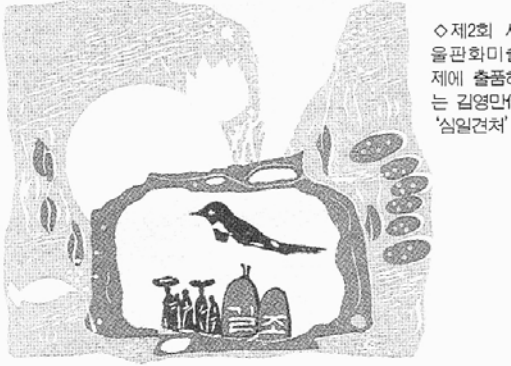
강익중씨작 '붓다를 찬양하며'.

'3인치작품' 5만여점 전시

재미화가 강익중씨 삼라만상 담아
'3인치 작가'로 불리는 재미화가 강익중씨가 5만여점의 작품을 한꺼번에 발표하는 대규모 초대전을 갖는다. 아트스페이스서울(3월20일~4월20일) 학교재화랑(3월20일~4월20일) 조선일보미술관(3월20일~3월31일) 3곳에서 동시에 전시회를 갖는 강익중씨는 세계미술의 중심지 뉴욕에서 국제적으로 기량을 인정받고 있는 작가로 가로세로 3인치(7.6cm)짜리 미니 캔버스에 일상사들 삼라만상을 담아 주목받아 왔다. 특히 <영어를 배우는 붓다>는 좌장한 부처의 도상이미지에 작가자신에게 미국 유학시절 고통을 안겨줬던 영어에 대한 기억을 되새겨 영어에 대한 소리가 캔버스에서 흘러나오도록 했다. 또한 <호로켓을 먹는 붓다> <붓다를 찬양하며> 등 붓다 시리즈는 동양과 서양문화의 조화를 시도하며 서양세계에도 열려있는 부처의 세계를 은유하고 있다. (속)

서울판화제 불자화가 대거 참여

이철수·강행복씨등...29일부터 예술의전당
판화미술의 대중화를 위한 제2회 서울판화미술제가 오는 29일부터 4월7일까지 10일간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이 전시에는 이철수 강행복 김영만 임호 황남채씨 등 불자 작가들이 각 회당대표로 다수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학교재화랑 대표로 나오는 이철수씨는 불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자연소재 작품을 선보인다. 나화랑 대표인 김영만씨는 '선사의 아침' 등 생명의 본성을 찾는 시리즈 작품을, 현화



또한 특별기획전으로 스페인에서 직접 가져온 피카소의 말티플 도에전과 폴 자크레의 1930~1960년의 한국의 풍물 및 풍속을 담은 우기요에 기법의 다채 목판화도 국내에서 처음 소개되는 것으로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성아출판 TEL 778-6826 7 FAX 778-6828

42장경

1.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2. 삶의 해변에서 모은 조약돌

붓다가 되시려는 모든 분께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보석을 준다면 그대가 재물을 탐했기 때문이고, 웃음을 준다면 그대가 다른 사람을 놀 기쁘게 했기 때문입니다.

42장경을 그대에게 소개하는 것은 그대가 붓다를 이해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2장경은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지는 하나의 방법이다. 인류 최고의 사상인 불교를 중국에 소개하기 위해 인도의 불교 스승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모아 42권의 시로 묶었다. 대부분의 불교 경전들이 대단히 방대하고 난해한 반면에 42장경은 단순하고 직설적이면서도 쉽게 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다. 이 책은 붓다의 42장경을 참목이다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오소의 명상적 깨달음과 특유의 농담, 재치 있는 우화를 곁들여 쉽게 읽을 수 있는 권이다.

그대의 모든 돈, 모든 보석, 그대의 모든 은실 진고품, '나는 조약돌로 본다.' 그 붓다는 말한다. 그는 삶의 바닷가에서 갖가지 조약돌을 모으며 놓고 있는 어린아이이다. 물론 그것들은 아름답게 보인다. 하지만 그것들은 아무 의미도 없는 해변의 조약돌일 뿐이다. 그대가 그것들을 모으고 있는 사이에 삶은 그대 손에서 빠져 나가고 흘러간다. 그는 크나큰 위험에 처해 있다. 이 기회를 조약돌을 모으는 것으로 먼저 버려서는 안 된다. -본문 중에서-

내가 도를 지겨운 지버를 청한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일무리 찾아와 나를 비난했다. 그러나 내가 침묵을 지키고 대답하지 않았더니 그는 비난하기를 그쳤다. 그때 내가 그에게 물었다. "만일 당신이 이웃에게 선물을 가지고 갔으나 그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다시 그대에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를 욕했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당신은 그 욕을 자신에게 한 것이다." 오소 라즈나쉬의 환광유 이광욱 옮김 신국문 전2권 / 각권 7,500원